법문사 지하궁에서 발견된 찻잔인 오판 규구권족비색자완.

당나라 황제는 무슨차 즐겼을까?

한국 전시중인 부처님 손가락 사리로 유명한 中 법문사 지하궁 유물로 본 唐대 차문화

1987년 4월, 부처님의 진신 지골사리가 발견된 중국 시안 법문사 지하궁에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또 다른 유물이 출토됐다. 바로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당나라 시대의 다기(茶器)가 그것이다.

당대 이전에는 차가 약용(藥用)으로 주로 쓰였고, 당대로 진입한 후에야 비로소 음용(飮用)으로서의 차 문화 틀이 형성되었다.

이시대 당대의 음다법(飮茶法)은 덩어리로 만든 차를 가루내어 끓여 마시는 자차법(煮茶法)이 주를 이루었다. 지하궁에서 출토된 〈물장비(物帳碑)〉에 따르면 지하궁에 봉안된 다구는 찻잎을 말리고 가루내고 저장하는 용기부터 찻숟가락과 찻잔 등 차를 마실 때 필요한 완전한 한 벌을 이루고 있다.

이는 당나라 희종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할 때 공봉(供奉)한 것으로, 희종이 황자 시절에 쓰던 '오가(五哥)'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희종이 직접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써 당대 궁중의 화려했던 차문화를 살필 수 있는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 전시에 이어 12월 8~20일 부산 BEXCO 제1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법문사 불지사리 친견 및 지하궁 유물 특별전'에 전시되는 유물을 중심으로 당대의 차문화를 살펴본다.

차 건조기인 류금비홍구로문은롱자.

찻가루를 거르는 류금비천선학문곤문좌은다라자.

당나라 시대에 제작된 유리 찻잔과 받침.

▶ 차 건조기와 맷돌

육우가 〈다경〉에서 당나라 시대의 차 마시는 순서를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찻잎을 따서 찐 후 절구에 넣고 찧어 덩어리로 만들어 말린다. 이를 병차(餠茶)라 한다. 이 병차는 '배로'란 건조기에 넣어두었다가 차를 마실 때 마다 한 덩어리씩 꺼내 불에 건조시켜 말린 후 가루를 내 끓여 마셨다. 지하궁에서 발견된 유물은 차를 마실 때 사용했던 도구들이 주를 이룬다.

병차를 마실 때는 차를 불에 구워 건조시킨 후 차 맷돌에 넣어 가루로 빻은 다음 가루가 된 찻잎을 한 번 더 거른 후 합(盒) 속에 넣어둔다. 그런 다음 차를 마실 때 서랍에서 분말 형태의 찻잎을 꺼내 끓이고 그것에 소금이나 후추 등을 곁들여 마셨다.

홍배기(烘焙器)는 바로 차를 건조시킬 때 쓰는 기구다.

'류금비홍구로문은롱자(鎏金飛鴻敎路紋銀籠子)'는 전체 높이 17.8cm 다리 높이 2.4cm 무게 654g이다. 전체는 뚫새김으로 이뤄져 있으며 도금으로 처리돼 있다. 금사로 만들어진 은롱자를 통해 이러한 금사 직조 공예가 당나라 때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류금홍안유운문은다연자(鎏金鴻雁流雲紋銀茶碾子)'는 덩이차를 가루 낼 때 쓴 절구로, 다연자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다연자는 판금 기법으로 제작됐으며 도금처리 되어있다. 전체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높이 7.1 가로 27.4 깊이 3.4 가로막 길이 20.7 너비 3 무게 1168g 이다. 바닥에 '함통 10년 문사원(文思院)에서 은금화다연자 하나를 제작했다. 전체 무게는 29냥이다'라고 쓰여져 있어 문사원에서 황제를 위해 제작한 다구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류금비천선학문곤문좌은다라자(鎏金飛天仙鶴紋壼門座銀茶羅子)'는 차를 가루낸 후 다시 한 번 거르는 기구다. 덮개와 망 서랍, 받침, 비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간에 가는 망이 두 층 끼워져 있어 찻가루를 걸러준다. 망 아래에는 서랍이 있어 차 가루를 넣어 놓을 수 있다.

병차를 가루낼때 쓰는 맷돌인 류금홍안유운문은다연자.

'류금비홍구로문은롱자' 등 화려한 금사 기술 자랑
소면담황색 유리다잔과 같은 유리다기 제작 사용
황실 · 귀족들 차문화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

▶ 소금과 다과 놓는 그릇

가루 내어 채에 내린 찻가루는 끓는 물에 넣어 거품을 일으켜 마셨다. 그러나 오늘날과 달리 당나라 시대에는 차를 마실 때 소금이나 생강, 박하 등의 조미료를 넣어 마셨다고 한다. '류금뇌유마갈문삼족가은염대(鎏金雷紐摩羯紋三足架銀鹽臺)'는 차에 넣어 먹는 소금이나 후추 등을 담던 다구로 추측된다. 받침 접시는 소금을 놓는 용도로 쓰였으며 연꽃봉오리 뚜껑 손잡이 부분에는 다른 조미료를 넣은 것으로 보인다. 높이 25cm 덮개와 받침 다기 3개가 있다. 표면에는 '함통 9년 문사원에서 도금 은염대 하나를 제작했다'고 적혀 있다. 염대(鹽臺) 표면에 새겨진 마갈은 인도 신화에 나오는 코가 길고 예리한 이빨에 물고기처럼 생긴 동물을 말한다.

'류금은파라자(鎏金銀波羅子)'는 다과(茶菓)를 놓는 그릇이다. 높이 4.2cm, 직경 10.8cm, 무게는 247g이다.

▶ 찻잔

이 시기의 찻잔은 자기(瓷器)나 사기(沙器)를 주로 사용했다. 궁중에서는 금이나 은 혹은 유리로 만든 잔, 비색(秘色) 자기 등 화려한 다구를 이용했는데 법문사 지하궁에서도 오판규구권족비색자완(五瓣葵口圈足秘色瓷碗)을 비롯한 비색 자기와 소면담황색유리다잔(素面淡黃色琉璃茶盞)과 다탁(茶托) 등의 유리다기가 출토됐다.

그 중 소면담황색유리다잔 세트는 지하궁에서 출토된 20개의 유리 제품 중 유일하게 중국에서 제작된 것이고 나머지는 이슬람에서 건너온 수입품으로 추정된다. 유리찻잔은 전체적으로 담황색을 띠고 있으며 윤이 나고 투명한 느낌을 준다. 재질은 여러 가지가 섞여 분명치 않지만 이 찻잔을 통해 당나라 때부터 유리로 제작한 다구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법문사 지하궁에서는 찻잎을 말릴 때 썼던 금은사결조롱자(金銀絲結條籠子)와 덩이차를 빻아 담아 둔 류금은귀합(鎏金銀龜盒), 차를 끓이던 은풍로와 가루가 잘 섞이도록 찻물을 저어주는 용기인 류금만초문장병작(鎏金蔓草紋長柄勺), 은으로 된 찻수가락인 류금비홍문은칙(鎏金飛鴻紋銀則) 등도 출토돼 당나라 황실의 차문화를 그려볼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제공=도서출판 일빛 〈법문사의 불지사리〉

조선시대 ㉙

총독부 지휘아래 제다업자들 이득 챙겨
광복후 차 생산 일인들의 힘 입은건 사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극에 달해 각급 학교 조선어과를 폐지하고 창씨개명을 강요했다. 일제는 그들의 정신을 심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식민지 사관에 입각한 교육을 시행했다. 학계나 관계에서는 우리 차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제다업자들은 다원을 만들어 차 제품을 팔아 이득을 챙겼다. 이 시기에 그들이 정리한 차 관계 자료들이 지금 와서 우리 차문화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된 것은 사실이다. 또 광복 후 차의 생산이 이때 일인들이 개척한 것에 많은 힘을 입었다.

중국도 이때는 전쟁 와중이라 특기할 것은 없고 일본은 새로운 제다법과 다맥(茶脈)의 부활을 시도해 그들의 정신을 이었다.

① 〈다신계절목〉 등 차에 관한 많은 자료가 수록돼 있다.

② 불회사의 이학치 스님의 단차와 보림사의 돈차(청태전)는 사원차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

③ 매일신보사에서 '다시' 공모.

④ 삼품창영(三品彰英)은 '조선의 차'를, 호천해당(好川海堂)은 차례, 상감청자 등에 관해 발표했다.

⑤ 강진에서 이한영(李漢永)씨가 만든 차로, 고급 작설이며 대략 60~70g씩 포장해 판매했다.

⑥ 장형두(張亨斗)가 전남에 분포된 차나무의 상태를 조사한 것이다.

⑦ 제강존(諸岡存)은 광주에서 차를 마셔야 한다는 강연을 했다.

⑧ 가입일웅(家入一雄)은 '청태전 탐사기'를 발표했다.

⑨ 제강존이 '조선에서 당대(唐代) 단차(團茶)의 발견' 발표.

⑩ 경성화학(주)이 일본 차 종자를 들여와 보성읍 야산에 심었다.

⑪ 제강존과 가입일웅은 '조선의 차와 선'에서 우리 차에 관한 자취와 현장답사를 적었다. 이는 1991년 김명배 선생에 의해 번역됐다.

⑫ 이기관서(已崎關西, 페인트회사)가 30정보의 다원을 조성해 돈차를 제조했다.

⑬ 총독부 학무국에서 간행한 '조선의 차'에서 일본 다도교육을 이식해 일본 생활문화와 정신을 익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했다. 40년에 이화여전을 비롯 전국 47개 여학교에서 일본 다법을 가르쳤다.

⑭ 가입일웅은 화엄사 백련사 대흥사 등을 다니며 차 시배지를 장죽전이라 주장하고 차의 생산량을 조사한 '반도 끽다의 자취를 찾아서'를 발표했다.

⑮ 천천백교(淺川伯敎)는 조선의 차가 일본차에 미친 영향 등을 밝힌 '조선의 차'를 발표했다.

⑯ 강진(옛 이름이 금릉)에서 다산이 가르친 제법으로 만든 차가 금릉월산차다.

⑰ 호산원(胡山源)이 편찬한 책으로 총 15만자에 달하는 중국의 고금의 다사(茶事)를 기록했다.

⑱ 왕운비(王雲飛)가 편찬한 총 30만자의 책. 장만방(莊晩芳)와 유부지(劉富知)가 쓴 것도 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936 〈여유당 전서〉 간행 ① 불회사, 백련사의 단차 ② 다시(茶詩) 모집 ③ 조선의 차 방송 조선의 차에 대하여 ④ 1937 백운옥판차(白雲玉版茶) ⑤ 1938 다수분석조사(茶樹分析調査) ⑥ 음다(飮茶) 권유 강연 ⑦ 1939 전남해안지방 청태전 ⑧ 조선에서 단차(團茶) 발견 ⑨ 일본종 차를 보성 야산에 심다 ⑩ 1940 조선의 차와 선 ⑪ 보성다원 ⑫ 1941 일본다도 보급 ⑬ 반도의 끽다 자취 ⑭ 1944 조선의 차 ⑮ @ 금릉(金陵) 월산차 ⑯	청대 1941 〈고금다사(古今茶事) ⑰ 1942 〈다작학(茶作學)〉 ⑱	강호시대 1936 북야 대다탕 1938 옥로가 증차로 됨 1940 이에모도 조직 1941 차와 문화 1943 〈차의 과학(茶之科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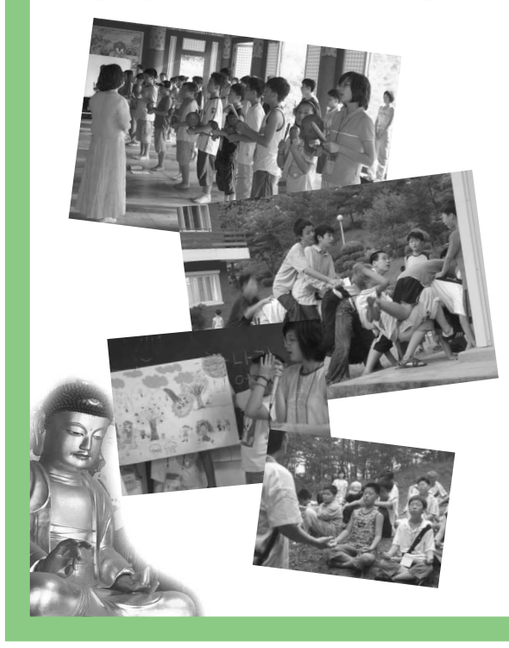
예약 주문 신청 문의
전화 : 02)722-7777 / 팩스 : 02)722-7845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37번지
월간 다도 편집부
※ 정기구독자들에게는 할인해 드립니다.

茶와 禪의 깊은 인연을 극명하게 풀이한
차茶와 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발간
상권 10,000원, 하권 13,000원
월간 「다도」 정기 구독자께는 상 · 하권 20,000원에 드립니다.

드디어 발간되어 판매 중입니다.

아듀 2005, 웰컴 2006!!!
제2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
"나도 부처님처럼" 부처님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심성수련, 명상수련

최근 참선, 명상 등 불교수행법이 심리치료 및 인성교육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 제시와 함께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하계방학에 이어 동계방학에도 제2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를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명상캠프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공부하며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수행하면서 서원과 목표를 세우고, 희망찬 2006년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05년 12월 29일(목) ~ 2006년 1월 1일(일), 3박 4일간
장소 : 다보사 다보수련원(충북 괴산)
대상 :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3학년(부모님과 교사도 참가 가능)
참가비 : 150,000원(격월간『불교와문화』· 월간『불광』구독자 10% 할인)
진행 : 김남선(교사, 제1회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명상캠프 및 심성프로그램 다수 진행) 외 10명

○ 목표
- 부처님 일대기 알기
- 나는 누구인가? 탐구하기
- 부처님의 일대기로 심성수련, 명상수련, 목탁 염불수련
- 목표와 서원이 있는 삶의 계획 세우기
- 희망찬 2006년 새해계획 수립하기, 희망 발원하기
- 내 안의 참된 스승 찾기
- 자신과 타인 이해하고 수용하기
-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 익히기
-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갖기 및 자신과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기

• 절 명상 • 목탁 염불 명상 • 진언을 통한 자비 명상 • 음악 명상
• 참회 명상 • 화해 명상 • 축복 명상 • 버리기 명상
• 죽음 명상(유서 쓰기) • 불꽃 명상 • 관상 명상 • 나누기 명상, 요가 등

◎ 참가 접수 및 일정 안내
격월간 불교와문화 www.buddhistculture.co.kr 02-719-2606
월간 불광 www.bulkwang.org 02-420-3300